

# 元雜劇「度柳翠」度脫\*

- 통과의례적 관점을 중심으로 -

金光永\*\*

## <目 次>

1. 서론
2. 분리의례
3. 전이의례
4. 통합의례
5. 결론

## 1. 서론

원잡극 「도류취」(정식 제목명은 「月明和尚度柳翠」)는 元代 희곡 작가인 李壽卿의 작품으로<sup>1)</sup> 남자 주인공인 月明和尚이 여자주인공인 柳翠를 도탈시키는 내용의 도탈극이다. 일반적으로 도탈극이라고 말하면 神仙道化劇이 연상되는데, 이것은 전체 도탈극 중에서 신선도탈극의 작품이 많기 때문이며,<sup>2)</sup>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류취」는 불교적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도탈극이다. 본시 도탈이란 용어는 佛家の 용어로서 濟度·解脫시킨다는 것으로, 만물의 생명을 生死와 苦厄

\* 본 연구는 2015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1) 『元曲選』에서는 작자를 표시하지 않은 등 논란이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李壽卿의 작품이라고 여긴다.

2)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신선도탈극에는 「升仙夢」 「城南柳」 「岳陽樓」 「黃梁夢」 「任風子」 「胡蝶夢」 「金童玉女」 「竹葉舟」 「劉行首」 「玩江亭」 「藍采和」 「誤入桃源」 「邯鄲店」 등 13편이 있고, 불교도탈극으로는 「度柳翠」 「忍字記」 「東坡夢」 「猿聽經」 등 4편이 있다.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06.

에서 濟度하고 解脫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도탈극이란 단어는 일본의 青木正兒가 『元人雜劇序說』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잡극을 분류하면서 明初 朱權이 지은 『太和正音譜』 중의 雜劇十二科를 분석하여, 神仙道化 種類의 작품을 도탈극과 謫仙投胎劇으로 나누었다.<sup>3)</sup> 그런데 朱權이 말한 神仙道化劇에는 도교적인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교도탈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도탈극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탈극은 仙佛이나 佛道와 인연이 있는 凡人이 신선이 되거나 成佛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희곡을 가리킨다.<sup>4)</sup>

도탈극은 도교와 불교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극에 속하지만 다른 종교극과는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곧 도탈극에는 반드시 도탈을 담당하는 도탈자와 도탈의 대상인 피도탈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리하여 피도탈자는 도탈자의 도움을 받아 生命의 眞義를 깨닫게 되어 최후에는 신선이 되거나 成佛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도탈극에서는 도탈의 과정이 작품의 핵심이 되며 일반적으로 정해진 세 단계의 틀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류취」에서는 첫째 단계에서 피도탈자가 신성한 종교적 세계에서 세속적 인간세계로 쫓겨나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둘째 단계에서는 도탈자가 도탈 대상인 피도탈자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도탈시키며, 셋째 단계에서는 도탈자가 피도탈자를 出家시키어 成佛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공간이동이 이루어지는데, 聖界-俗界-聖界의 순환적인 공간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논문에서 다루는 「도류취」는 이러한 도탈극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도탈의 전 과정이 세 단계로 확연히 구분되어, 도탈극의 일반적인 양상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통과의례라는 단어는 독일 출신의 네덜란드계 민속학자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약한 A 반 겐넵(Arnold van Gennep)이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그는 1909년에 『통과의례』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좁은 의미의 통과의례와 넓은 의미의 통과의례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탄생

3) 青木正兒 著, 隋樹森譯, 『元人雜劇序說』, 臺灣, 長安出版社, 1976, 32쪽.

4)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06.

과 결혼 및 죽음 등의 시기에 사회 내에서의 신분 변화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인생의례를 행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을 통과하거나 국왕이나 족장의 취임 및 여러 종교행사에도 반드시 행하여지는 의례가 있는데 이를 통과의례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半文明的인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행위들이 神聖함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생활에서의 모든 변화가 신성함과 世俗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전체사회가 피해를 받거나 혼란을 겪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sup>5)</sup>

젠넵은 『통과의례』에서 전체 과정의 의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분리의례-전이의례-통합의례가 그것이다.<sup>6)</sup> 다만 세 단계의 의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똑같이 중요하거나 똑같이 정교하게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과거 로마카톨릭이나 정통카톨릭의 사제가 행했던 삭발의식은 분리의례인 동시에 통합의례이듯, 젠넵은 식물학자처럼 모든 의식행위를 엄밀하게 분류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sup>7)</sup> 그런데 이러한 세 단계의 통과 의례 과정은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도류취」와 같은 도탈극의 세 단계와 매우 흡사하다. 통과 의례와 도탈극은 전체적인 의례의 구성이 세 단계로 같을 뿐만 아니라, 다루고자 하는 내용도 종교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신성함과 세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의식의 과정에서는 상징의 수법이 자주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과 의례의 관점을 사용하여 불교도탈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도류취」의 도탈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젠넵의 통과 의례 이론은 이후 민속학과 종교학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례로 유명한 종교학자인 M.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자신의 『聖과 俗』이라는 저서에서 통과 의례 이론을 종교론적으로 해석하였으며,<sup>8)</sup> 상징인류학을 창안했으며 현대의 공연예술이론에 중요한 기여를 한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제의

5) A. 반 젠넵 著, 金京秀 譯,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1994, 29쪽.

6) 상계서, 40쪽.

7) 상계서, 41쪽.

8) M. 엘리아데 著, 이은봉 譯, 『성과속』, 서울, 한길사, 1998.

에서 연극으로』라는 저서에서 통과의례이론을 새롭게 해석하며 발전시켰다.<sup>9)</sup> 이에 본고에서는 원잡극 「도류취」의 도탈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켄넬의 『통과의례』와 엘리아데의 『성과 속』 및 터너의 『제의에서 연극으로』 세 저서에 보이는 통과의례 논술을 사용하고자 한다.

통과의례의 관점을 사용하여 도탈극을 분석하는 시도는 중국에서 산견된다. 일찍이 容世誠은 그의 『戲曲人類學初探』 중 「度脫劇的原型分析」에서 통과의례의 관점을 사용하여 도탈극을 분석하였고,<sup>10)</sup> 楊毅는 그의 박사논문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에서 통과의례의 관점을 사용하여 몇몇 도탈극을 비교적 간략히 논하였다.<sup>11)</sup> 본 논문은 이들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도탈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도류취」의 도탈과정을 작품의 구체적인 원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 2. 분리의례

통과의례의 관점에 의하면 분리의례는 일반적으로 종래의 지위나 상태로부터의 이별을 상징하는 형태로 행하여지는데, 가령 죽음을 상징하는 행위를 수반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마을에서 떨어진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그것이다. 곧 초입자들은 새로운 사회로 통합되기 위하여 이전의 사회로부터 분리되며, 이전 사회와 관련해서는 그는 죽은 셈이 된다.<sup>12)</sup> 먼저 분리의례의 성격을 간략하고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빅터 터너의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다른 하나의 사회적 지위로 옮겨갈 때에는 종종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공간적·지리적인 이동이 병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히 문을 열거나 두 개의 지역을 나누는 문간방을 가로질

9) 빅터 터너 지음, 김익두 옮김,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 현대미학사, 1996.

10) 容世誠 著, 『戲曲人類學初探』, 北京, 光西師範大學出版社, 2003.

11) 楊毅, 『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 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12) A. 반 켄넬 著, 金京秀 譯, 『통과의례』, 서울, 을유문화사, 1994, 130쪽.

러 가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sup>13)</sup>

빅터 터너의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분리의례에는 주로 공간의 변화가 동반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상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러한 분리의례적 성격이 불교도탈극인 「도류취」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도류취」의 도탈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분리의례는 작품의 초반인 楔子에서 비교적 간략히 보이는데 그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老旦이 관세음보살로 분장하고 小末이 분장한 善才童子를 데리고 등장)……내 그 淨瓶 안의 버드나무 가지와 잎이 뜻밖에 먼지에 더럽혀졌으니 그 벌로 인간세상에 내려가 한 번 輪回를 해야 하느니라. (버들가지를) 杭州의 抱鑑營街 積妓牆 아래에서 妓女로 변화시켜 이름을 柳翠라고 하라. (그리고) 30년 후 前生の 惡業을 다 갚은 때에 第16尊 羅漢인 月明尊者로 하여금 인간세상에 내려가 유취를 點化시키어 다시 이곳 聖界로 되돌려 함께 禮佛 法會에 오르도록 하라.<sup>14)</sup>

위에 의하면 「도류취」에서 피도탈자인 류취는 전생에 본시 인간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淨瓶 속의 버들가지인 식물이었다. 관세음보살은 중국과 한국에 전해진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보살로서 慈悲의 화신으로 숭앙되고 있으며, 정병은 원래 인도에서 수행생활을 하는 승려가 마실 물을 담던 수행도구 가운데 하나였으나, 중국에 관음신앙과 함께 전파되면서 부처나 보살에게 바치는 맑은 물을 담은 의식구로서 그 의미와 기능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정병 속에 있는 버들가지는 관세음보살의 大慈大悲를 상징하여, 마치 실바람에도 버들가지가 나 부끼듯이 미천한 중생의 어떠한 소망에도 유연하게 응해서 衆病을 제거해주는 자비를 상징하고 있는 聖物이다.<sup>15)</sup> 그리하여 이러한 聖物인 버들가지는 관세음보

13) 注9冊, 42쪽.

14) (老旦扮觀音領小末扮善才上)……且說我那淨瓶內楊柳枝葉上偶汚微塵，罰往人世，打一遭輪回，在杭州抱鑑營街積妓牆下，化作風塵匪妓，名爲柳翠，直等三十年之後，填滿宿債，那時着第十六尊羅漢月明尊者，直至人間點化柳翠，返本還元，同登佛會。王學奇 主編，《元曲選校注》，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1994，3369쪽.

15) 李惠綿，「論析元代佛教度脫劇」，《佛學研究中心學報》，第6期，臺灣，2007.

살 정병 속에 들어있는 不死의 甘露水를 고통받는 중생에게 뿌리는 데도 사용된다.

「도류취」에서 류취를 도탈시키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月明尊者는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羅漢의 신분으로 이는 阿羅漢의 약칭이다. 불교의 교리에는 四聖六凡이라는 말이 있는데, 四聖은 깨달은 부류로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佛-菩薩-緣覺-聲聞의 네 단계로 구분되고, 六凡은 아직 깨닫지 못한 부류로서 天神-人間-阿修羅-丑生-餓鬼-地獄을 가리키며, 인간은 자신의 인과응보에 따라 이 육범을 윤회하는 六道輪回를 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도탈자인 월명존자는 아라한의 신분으로서 이미 깨달은 존재인 聲聞의 단계에 진입한 사람으로 인간세계의 큰 고통인 生死의 윤회를 초탈하였으며, 버들가지 역시 비록 식물이지만 관세음보살 정병 속의 聖物이기 때문에 이미 생사의 윤회를 초탈한 존재이다.

그런데 정병 안의 버들가지는 聖物의 신분으로서 神聖한 세계에 존재하다가 이로부터 분리되어 인간세상인 속계에 貶謫되어 새로운 윤회를 겪게 된다. 더군다나 버들가지는 인간세계로 분리되면서 사회적 신분이 아주 미천한 기녀 신분으로 떨어지는데, 버들가지가 기녀의 신분으로 떨어진 이유는 ‘偶汚微塵’이라는 네 글자로서 아주 간략하다. 그것은 아마 관세음보살 정병 속의 버들가지는 淸淨無垢함을 생명으로 하는데, 어느날 뜻밖에 먼지같은 속세 생각을 하여 그것에 의해 자신이 더럽혀져 그 청정함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엘리야드가 자신의 『성과속』에서 분리의례를 논하면서, 신가입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켜 숲 속에 일정 기간 은둔시키는 것에서 시작한 분리의례에는 이미 여기에 죽음의 상징이 존재한다는 말을<sup>16)</sup> 연상시킨다. 곧 청정한 버들가지가 속세 생각이란 먼지에 더럽혀진 것은 버들가지의 본질인 청정함의 상실로서 이는 聖物 존재로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상징적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류취」에는 비록 분리의례가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신성한 세계에서 세속적 세계로의 공간적 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 과정에 상징적 죽음이 묘사되어 통과례 중 분리의례의 일반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16) M. 엘리야데 저, 이은봉 역, 『성과속』, 서울, 한길사, 1998. 172쪽.

### 3. 전이의례

전이의례는 과도의례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분리의례에서 통합의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통과의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이의례의 주체는 이전의 모든 지위 또는 역할의 징표를 벗어버리고 再生을 기다리는데, 그 과정 중에 많은 고통과 고난 및 고행 등의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시련 중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특히 肉身과 같은 생명의 사망은 시련의 정점으로 자리잡는다. 그러면 이러한 전이의례에 대해 『성과 속』에서 종교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엘리야테의 다음 글을 살펴보자.

진정한 의미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는 이 최초의 (자연적) 생명으로  
는 죽어야 하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더 높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원시인은 자기들이 도달하고자 소망하는 인간의  
이상을 초인간적인 지평에다 설정한다는 것이다.<sup>17)</sup>

인용문에서 엘리야드가 말하듯 전이의례의 과정 중에 통과의례의 참여자는 진정한 의미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죽음과 같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 등을 겪기 마련인데, 마찬가지로 원잡극 「도류취」에서도 전이의례에 해당되는 도탈의 과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및 시련 등이 보여진다. 또 전이의례가 통과의례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듯 「도류취」에는 전이의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많으며, 작품의 제1절에서 제4절까지 전이의례적 도탈과정이 우여곡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 「도류취」의 초반부 제1절 중의 원문을 살펴면서 도탈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월명화상: 류취야, (세월은) 무상하고 빠르게 흘러가지. 生死의 일은  
중대한 것이니 나와 함께 出家하렴.  
류취: 저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출가할 수 있겠어요?  
월명화상: 류취야, 네가 지금은 늙지 않았지.  
류취: 늙지 않았지요.

17) 상계서 171쪽.

.....

월명화상: 류취야, 나와 함께 출가하렴.

류취: 저는 나이가 어려 돈벌기 좋잖아요. 그런데 사부님과 함께 출가하면 生死를 없게 해주나요?

월명화상: 류취야, 네가 만일 나와 함께 출가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生死에서 벗어나 六道輪回를 벗어나도록 해주지. 너는 그 문 앞에서 자주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지도 않고,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도 않게 되지.

.....

(류취 어머니가 월명화상을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동작을 한다)

월명화상: 류취야, 문열어! 너 정말 인연이 안되는구나!<sup>18)</sup>

「도류취」의 제1절은 류취 부친 사망 10주기 추모행사인 佛事를 배경으로 한다. 극 중 正末의 신분으로 등장하는 월명화상은 바로 류취 부친 10주기 추모행사인 佛事を 행하기 위하여 참가하였으며, 그는 여기에서 자신이 도탈시킬 피도탈자로서 류취를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월명화상은 류취에게 출가할 것을 권유하는데, 다른 도탈극에서와는 달리<sup>19)</sup> 단도직입적으로 류취에게 출가를 권유하고, 류취가 출가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용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집요하게 권유한다. 실질적으로 「도류취」 작품에 있어서 제1절은 월명화상이 류취에게 출가를 권유했으나 불응하는 인용문의 장면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도류취」는 불교도탈극이어서 불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이 작품의 模式을 결정한다. 이런 점에서 위의 인용문은 불교 교리의 핵심인 인과응보와 四聖諦의 이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곧 류취가 버들가지라는 성물에서 미친한 기녀로 폄적되어 윤회를 하고 있는 상황은 성물의 존재인 버들가지가 먼지와 같은 속세 생각에 오염된 인과응보의 果報이다. 또 사성제는 佛陀의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라는 뜻으로 苦諦·集諦·滅諦·道諦를 가리키는 불교의 핵심적인 인생관이다. 불교의

18) (正末云:) 柳翠, 無常迅速, 生死事大, 跟我出家去來. (旦兒云:) 我年紀小, 如何出得家? (正末云:) 柳翠, 你如今不老了也. (旦兒云:) 我不老哩. .... (云:) 柳翠, 你跟我出家去來. (旦兒云:) 我年紀幼小, 正好覓錢, 可着我跟我出家去, 免的我生死么? (正末云:) 柳翠, 你若跟我出家去呵, 我着你脫離生死, 免却六道輪回. 則你那門前莫接類來客, 心間休掛有情人. .... (卜兒做推正末出, 閉門科) (正末云:) 柳翠開門來, 你好是緣薄呵! 注14冊, 3378-3380쪽.

19) 일례로 「忍字記」에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출가를 권유한다.



교리에 의하면 범부인 衆生의 모든 현실세계는 고통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苦諦이다. 그리고 고통에는 八苦라고 하여 生·老·病·死의 네 가지 고통 이외에 愛別離苦·怨憎會苦·求不得苦·五陰盛苦가<sup>20)</sup>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사성제에 의하면 번뇌와 渴愛 및 無明의 집착이 모였기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集諦이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가? 불교의 사성제에 의하면 모든 번뇌와 갈애 및 무명을 제거하고 해탈하여 청정무구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니 滅諦가 그것이며, 그러한 滅諦의 수행방법으로써 여덟 가지인 八正道<sup>21)</sup>를 제시하는데 이것이 道諦이다. 이러한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기녀인 류취의 삶은 惡業과 고통으로 충만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기녀 생활로 돈을 벌려는 번뇌 등의 집착이다. 그리하여 피도탈자인 월명화상은 피도탈자인 류취를 일체의 고통과 惡業에서 제도하기 위하여 출가를 권유하였으나 위의 인용에서와 같이 거절당하였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류취가 월명화상의 집요한 출가 요구에 응할 뜻을 조금 내비쳤으나, 류취의 기녀생활로 돈을 벌고자 하는 류취 모친의 반대로 류취의 출가는 막히었다. 이것을 불가식으로 해석하면 악업과 번뇌로 인하여 善業을 쌓지 못하여 淸淨한 삶의 길이 막힌 것이다.

전이의례적 관점에서 볼 때 류취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그녀는 과거 관세음 보살 정병 속의 버들가지 신분이었을 때는 聖物로서 생사의 윤회를 초탈한 존재였으나, 인간세상인 속계로 폄적되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대도시인 杭州의 기녀거리에서 비참한 기녀 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우여곡절의 전이의례가 앞으로 닥쳐올 것이지만, 작지는 작품의 안배상 제1절에서는 비교적 간략히 그녀의 고통을 배치하였다. 피도탈자인 류취의 고통과 고난 등의 시련이 심화된 것은 제2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제2절이 시작되자마자 류취는 뜻밖의 시련을 당하는데, 원문을 인용하며 살펴보자.

20)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증회고는 원한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불득고는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고통, 오음회고는 다섯 가지인 色·受·想·行·識으로 인한 고통을 가리킨다.

21) 正見(바르게 보기), 正思惟(바르게 생각하기), 正語(바르게 말하기), 正業(바른 행동), 正命(바른 수단으로 목숨 유지하기), 正精進(바르게 정진하기), 正念(바른 신념), 正定(바르게 마음 안정시키기)

류취: 저는 류취입니다. (아버님) 佛事를 다 끝내고 나서부터 그 월명화상님을 뵈었는데, 잠 속 꿈에서도 그 월명화상을 봅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梨花猫로 변했어요. 제가 오늘 남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관청에서 절 부르니 어떡하죠. 그 월명화상을 만날까 걱정되니 제가 이 앞거리로 가지 않고 뒷골목으로 가야겠네요.

월명화상: 멀리서 보니 류취가 이쪽으로 가구나. 이쁜 아가씨, 어떻게 나를 피해 갈 수 있겠어?

.....

월명화상: 류취야, 梨花猫로 변한 것을 무서워하면서 왜 이 월명존자에게 묻지 않아?<sup>22)</sup>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류취는 아버님 추모 佛事를 끝내고 나서 자주 월명화상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도탈자인 월명화상이 피도탈자인 자신에게 출가를 권유했으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류취는 꿈속에도 자주 월명화상을 보게 되는데, 어제 밤에는 자신이 꿈속에서 梨花猫라는 고양이인 畜生으로 변한 꿈을 꾸었다. 이에 류취는 자신이 꿈속이지만 자신이 인간이 아닌 고양이라는 축생으로 변한 것을 매우 무서워하여 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관청에서 기녀인 자신을 불러 할 수 없이 관청으로 가고자 한다. 다만 관청으로 가는 길에 혹시 또 월명화상을 만날까 일부러 다른 길을 선택했으나 역시나 월명화상을 만나고 만다. 그런데 뜻밖에도 월명화상은 이미 자신의 꿈 속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류취」의 작자는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하여 위의 인용문에서는 허구적인 꿈의 수법을 사용하여 류취로 하여금 六道輪回 중 인간의 세계보다 아래 단계인 畜生으로 윤회하도록 만든다. 물론 여기에서 류취가 梨花猫라는 고양이인 축생으로 윤회한 것에는 상징적으로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에 의하면 윤회는 한 생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인과응보의 업보에 의하여 새로운 윤회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류취가 고양이로 변하는 것은 전이의 레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여길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에는 상징

22) (旦兒上, 云:) 妾身是柳翠, 自從做罷好事, 見了那和尚, 我睡裏夢裏, 便見那和尚. 我夜來做了一個夢, 夢見變做個梨花猫兒. 我今日欲待問人, 爭奈喚官身. 我不往這前街里去, 則怕撞見那和尚, 只後巷里去波. (正末上, 云:) 遠遠望見柳翠往這里去了, 小鬼頭, 你怎生躲的過貧僧也. ....(云:) 柳翠, 你怕做梨花猫兒, 怎生不問我這月明尊者來? 注14冊, 3385쪽.

적인 죽음이라는 고통과 시련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상징적인 죽음이라는 의식을 동반하여 류취를 출가시키고자 했음에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 월명화상은 류취에게 더욱 강한 시련을 겪도록 만든다. 월명화상은 류취가 잠시 잠든 사이 그녀가 매우 무서운 꿈을 꾸도록 만드는데, 이러한 방식은 도탈극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이다. 그러면 원문을 살펴보자.

월명화상: 잠들었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실컷 잠들도록 하리라. 이런 인간은 무서운 꿈을 꾸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깨닫지를 못하지. 류취야, 빨리 깨어나라. 관청에서 부른다. (거짓으로 퇴장한다.)

염라대왕 (獄卒인 牛頭와 鬼力을 데리고 등장): ……, 지금 항주의 류취가 高僧 羅漢을 더럽혔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애들아, 나에게 류취를 잡아오너라. (鬼力이 류취를 잡아다가 무릎을 꿇힌다)

염라대왕: 너는 인간세계에서 고승 나한을 더럽혔기 때문에 牛頭와 鬼力은 류취를 참수하고 보고하라.

……

월명화상: 염라대왕이시여, 류취는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염라대왕: 류취가 고승을 더럽혔습니다.

월명화상: 유취의 죄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까?

염라대왕: 유취의 죄는 용서할 수 없소. 鬼力아, 빨리 죽여라. 빨리, 잠속 꿈이라고 미루지 말고.

류취(놀라 깨며): 무서워 죽겠구나!<sup>23)</sup>

위의 인용문에서 도탈자인 월명화상이 피도탈자인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해 사용한 허구적 꿈의 수법은 도탈극에서 자주 사용한 것으로 ‘惡境頭’라고 한다. ‘境頭’는 ‘鏡頭’라고도 하며 허구적 夢境이나 幻境을 가리키는 용어로 도탈극에서 자주 사용하며, 위에서는 아주 흉악한 꿈을 의미하는 ‘惡境頭’의 수법을 사용하여 도탈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실 인위적으로 남에게 꿈을 꾸게 하는

23) (云:) 你睡着了, 我着你大睡一覺. 這等人不着他見個惡境頭, 他可也不得省悟. 柳翠, 你快醒來, 喚官身哩. (虛下) (外扮閻神領淨牛頭鬼力上, 云)……, 今爲杭州柳翠, 觸汚聖僧羅漢, 更待干罷. 牛頭鬼力與我攝過柳翠來者. (鬼力做拿旦兒跪科) (閻神云:) 爲你在人間觸汚聖僧羅漢, 牛頭鬼力將柳翠斬訖報來,……, (正末云:) 閻神, 柳翠犯着何罪? (閻神云:) 因柳翠觸汚着聖僧來. (正末云:) 柳翠的罪過, 饒的也, 饒不的? (閻神云:) 柳翠的罪過, 饒他不得. 鬼力, 快下手者. 疾. 休推睡裏夢裏. (旦兒做驚醒科, 云:) 兀的不嚇殺我也! 注14冊, 3388-3389쪽.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法術을 지닌 자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가능한 것인데, 「도류취」의 작자는 월명화상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여 도탈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부분은 극 중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또 하나의 작은 극이 운용되어, 소위 극 중의 극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작품을 공연했을 시에는 일정한 공연효과를 거두었으리라 여겨진다.

전이의례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부분은 피도탈자인 류취에게 비록 꿈속이지만 매우 커다란 고통과 시련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녀는 비록 꿈속이지만 인간세상의 생사윤회를 관장하는 염라대왕에 의해 참수당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또 상징적인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이의례의 일반적 성격과 매우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깜짝 놀라 꿈에서 깬 류취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고사의 전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류취는 이러한 ‘惡境頭’를 통하여 생명의 眞義를 깨닫게 되어, ‘生死는 원래 空虛한 것이고, 공허함이 사라지면 생사도 멈춘다(生死原來是幻情, 幻情滅盡生死止)라는<sup>24)</sup> 불교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불교에 의하면 모든 중생은 본시 不生不滅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이며, 류취는 꿈속의 큰 고통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피도탈자인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해 작자는 이상에서와 같이 꿈을 통하여 두 차례의 고통을 류취에게 가하였다. 류취는 꿈속에 고양이로 변하는 무서운 꿈을 꾸었고, 마침내는 참수당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서운 꿈을 통하여 결국 류취는 불가의 기본적인 이치를 깨달아 불가에 입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쉽게 수궁하기 어렵지만 「도류취」가 불교도탈극인 종교극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수궁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류취가 위에서와 같이 흉악한 꿈을 통하여 비록 불가의 기본적인 이치를 터득하였지만 불교에 귀의하여 완전히 도탈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먼저 류취는 월명화상과 출가하기에 앞서 먼저

24) 注14冊, 3390쪽.

가족들과 고별을 하기 위해 만나겠다고 요구하는데 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黃鐘尾}……

류취: 사부님, 지금 저를 어디로 데려가지요?

월명화상(노래): 네가 靈鷲山을 방문토록 하지.

류취: 제가 형제자매들과 고별을 하고 나서 따라가지요.

월명화상(노래): 妓院의 옛 친구들과 고별하지 말아야지.

류취: 사부님, 왜 제가 고별하지 못하도록 하시지요?

월명화상: 왜 고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면. (노래:) 네가 또 色情에 얽힐 것이 겁나구나.

……

류취: 사부님, 저희 집 문 앞입니다. 식사하시러 들어가시지요.

월명화상: 류취야, 너희 집 문 앞에 왔구나. 너는 俗念을 일으키지 말아라. 네가 俗念을 일으키면 나는 금방 아느니라.

류취: 제가 감히 俗念을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사부님이 오셨어요. 식사 좀 차려주세요.<sup>25)</sup>

위의 인용문은 류취가 불교의 기본적인 이치를 깨닫고서는 출가하기에 앞서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고별하기 위해 월명화상과 함께 자신의 집에 들른 장면이다. 인용문 중 영취산은 인도에 있는 산으로서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 앞에서 설법을 펴셨던 곳으로 불가에서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여긴다. 곧 여기에서 월명화상이 류취를 영취산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불가에 귀의시키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월명화상은 류취가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고별하는 것을 말리지는 못했으나,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妓院에 있으면서 사귀 남자들과의 色情에 또다시 얽힐까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월명화상은 류취의 집에 들러서도 류취에게 혹시 속세에 대한 미련인 俗念을 일으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25) {黃鐘尾}……(旦兒云:) 師父, 你如今帶我那裏去? (正末唱:) 我着你訪靈山會首. (旦兒云:) 待我辭別那班兒姊妹弟兄, 就跟的去. (正末唱:) 也不索別章臺的這故友. (旦兒云:) 師父, 爲什麼不着我別去? (正末云:) 你道我爲什麼不着你別去. (唱:) 我則怕你又折入情郎畫眉手.……(旦兒云:) 師父, 這是柳翠家門首, 請吃齋去. (正末云:) 柳翠, 來道你家門首, 你休凡心動也. 你凡心動, 我便知道. (旦兒云:) 我柳翠并不敢凡心動. 奶奶, 師父來了也, 安排齋食供養. 注14冊, 3390-3397쪽.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에게는 많은 고통으로 충만되어 여덟 가지의 고통인 八苦를 지니고 있는데, 위의 인용문은 그 중에서 인간의 愛別離苦를 말하고 있다. 불교의 애별리고는 부모·형제·자매·부부·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을 말하며,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淸淨한 불가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피도탈자인 류취는 비록 불가의 기본적인 이치인 不生不滅의 이치를 터득했다고 하지만 아직 애별리고의 고통에 사로잡혀 청정한 불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전이의례적인 관점에서 보면 류취는 도탈과정 중에 또다른 고통과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원잡극 「도류취」의 제3절은 작품의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진심으로 불교에 귀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하여 제3절의 배경이 된 류취의 집에서 바둑과 雙六 및 氣球라는 세 가지 技藝를 동원한다. 제3절이 시작되자마자 월명화상은 류취를 出家시키기 위하여 削髮을 요구하나 류취는 자신의 마음이 淸淨하기만 하면 되지 삭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삭발을 거부한다. 그리하여 도탈자인 월명화상은 피도탈자인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하여 바둑과 雙六 및 氣球라는 세 가지 기예로써 그녀와 겨루는 과정 중에 불교의 이치가 담긴 세 가지 偈言을 말함으로써 그녀를 도탈시킨다. 그러면 세 가지 偈言을 살펴보자.

(계언을 말하다) 다투는 생각 없애지 못했나니, 黑白의 마음 먼저 잊어야지.

無敵의 길목에서, 찾을 사람 없는 길 철저히 깨닫지.....

(계언을 말하다) 마른 해골 하나, 東君神 손바닥에 들고 있더니,

한 점 더럽혀진 뒤로는, 이 세상에 던져버렸네.....

(계언을 말하다) 地·水와 火·風의 (네 가지) 要素는, 無爲公에 포함되었건만.

하루 아침 無爲公 사라진 후, 地·水·火·風은 각기 따로 흩어진다네.<sup>26)</sup>

26) (偈云:) 未去爭交意, 先忘黑白心. 一條無敵路, 徹了無人尋.....

(偈云:) 一把枯骸骨, 東君掌上擎. 自從有點汚, 拋擲到今生.....

(偈云:) 地水與火風, 包含無爲公. 一朝公去後, 四大各西東. 注14冊, 3398-3399쪽.

위의 인용문에서 월명화상이 류취에게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偈言은 모두 5언 시로서 모두 불가적 哲理를 담고 있다. 첫 번째 계언은 월명화상이 류취와 함께 바둑을 두면서 말한 것으로, 바둑에서 흑백을 잡은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며 다투는 마음을 빌어, 서로 간에 죽이고자 하는 흑백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無敵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불가적 이치를 말하고 있다. 두 번째 계언은 쌍륙을 두면서 말한 것으로, 쌍륙 때 사용되는 마른 해골 모습의 주사위는 본시 하늘의 東君神이 손바닥에 가지고 있던 것인데, 주사위가 더럽혀지자 동군신이 이 세상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말하여, 은연 중에 류취의 지금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세 번째 계언은 氣球 놀이 도중에 말한 것으로, 불교의 대표적인 우주관을 말하고 있다. 불교에 의하면 사람의 육신을 포함하는 일체의 만물은 四大라고 부르는 地·水·火·風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네 가지 요소의 이합집산으로 인하여 만물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람의 육신도 죽으면 네 가지 요소가 각기 흩어져 없어질 뿐이라고 여기는데, 위의 계언은 이러한 불가적 哲理를 말하고 있다. 또 이 계언 중의 無爲라는 용어는 도가적 용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불가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眞理라는 뜻의 다른 이름으로 『華嚴經』에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인 自性이 없는 진리를 無爲라고 했다.<sup>27)</sup> 곧 無爲公은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고 불교에 귀의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피도탈자인 류취의 도탈은 세 가지 기예를 겨룰 때 말한 월명화상의 계언으로 절정으로 치닫는다. 류취는 월명화상의 세 계언을 듣고 나서 깊이 깨달아 곧바로 출가를 결심한다. 그러면 원문을 인용하며 류취의 도탈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자.

류취: 사부님과 함께 출가하겠습니다. 먼저 관청에 부름받을 때 입었던 그 옷들을 태워주세요.

류취 모친: 애들아, 관청에 부름받을 때 입었던 류취의 옷을 가져오렴.

류취 (계언): 번뇌 제거함을 뼈대로 삼을 걸, 반평생 완전히 깨닫지 못

27) 注14冊, 3413쪽 참조.



했네. 나귀나 말같은 몸 벗어나, 天堂 길을 正果<sup>28)</sup>로 얻었다네. 오늘에야 진짜 스님 만나, 옷을 태우고 (불가에) 귀의하네. 제자가 옷을 태우니, 스승님은 마땅히 불을 지펴야죠.

월명화상: 그래. 제자가 옷을 태우니, 스승이 마땅히 불을 지펴야지. 류취의 옷을 태웠도다.

.....

{滿庭芳}.....

월명화상: 류취야, 네가 관청에 부름받을 때 입던 예복을 태우는 것은 비유할 수가 있지.

류취: 사부님, 무슨 비유가 있어요?

월명화상(노래): 자제들에게 보낼 헤진 喪服을 땅에 묻어버리는 격이고, 전쟁할 낭군님의 갑옷과 투구를 불에 태우는 격이지. 이런 것은 내가 참선하는 뜻과 부합하니, 너는 오늘 번뇌에서 벗어나 이롭게 되리라. 류취야, 오늘 이후 말뚝구리 겹질같은 겉옷을 일찌감치 제거해 버린 격이구나.<sup>29)</sup>

위의 인용문은 「도류취」 도탈 과정의 절정이다. 총명한 기녀로서 여러 가지 기예에 능통하여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고 싶었던 류취는 월명화상과 세 가지 기예를 겨루는 도중 불가의 이치를 말한 월명화상의 계언을 들은 후 곧바로 출가를 결심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전체적인 도탈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행위를 하는데, 기녀인 자신이 관청의 부름을 받을 때 입었던 예복을 태우는 '燒衣'의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燒衣'의식은 단순히 옷을 태우는 동작이 아니라 지난 속세 생활과의 결별인 동시에 속세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상징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 도탈극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죽음은 대부분 필수적인 것이며,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탄생인 재생을 기다릴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월명화상은 류취의 이

28) 수행함으로써 얻은 깨달음의 결과

29) (旦兒云:) 我跟師父出家去. 先將我那當官身衣服燒毀了罷. (卜兒云:) 下次小的每, 將過柳翠當官身的衣服來者. (旦兒偈云:) 五漏作形骸, 半生全不悟, 脫却驢馬身, 正果天堂路. 今日遇眞僧, 燒衣便歸去. 弟子燒衣, 師當下火. (正末云:) 是. 弟子燒衣, 師當下火. 燒了柳翠的衣服也. ....{滿庭芳}....., (云:) 柳翠, 你燒了這冠衫背子, 有個比喻. (旦兒云:) 師父, 有什么比喻? (正末唱:) 也則是土葬了你那送子弟麻花孝衣, 火燒了你那戰郎君的這鎧甲頭盔. 這一場正合着俺那參禪意, 你今日個脫身利己. 柳翠也, 從今後早則去了你那蛄蟻皮. 注14冊, 3399-3400쪽.



러한 '燒衣'의식을 인간생활의 다른 중요한 행위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제들에게 보낼 喪服을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 전쟁터에서 필요한 낭군의 갑옷과 투구를 불태우는 행위처럼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들을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월명화상은 류취가 기녀복을 태우는 것을 마치 곁모습만 그럴듯한 말뚝구리의 껍질을 제거해 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상징적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종교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엘리아데의 다음 글을 살펴보자.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사람은 '자연적' 인간을 넘어 서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폐기시킬 때에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된다. 왜냐하면 가입식(통과의례)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역설적이고 초자연적인 죽음과 부활 혹은 재생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둘째, 시련과 상징적인 죽음 및 부활을 동반하는 가입식(통과의례) 의례는 신들, 문화영웅들, 혹은 신화적 선조들이 창조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초인간적인 기원을 가지며, 신가입자는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를 모방하게 된다.<sup>30)</sup>

엘리아데는 위에서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인 인간이 통과의례 중 전이의례라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통하여 신성하고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과정과 의미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완전한 인간은 자연적 인간을 넘어서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 및 재생의 체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시련을 동반한 전이의례는 이미 神들·문화영웅들·신화적 선조들이 창조한 것으로, 의례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을 수행함으로써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를 모방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피도탈자인 류취가 불가의 진의를 문득 깨닫고 자신이 과거 입었던 기녀복을 태우는 '燒衣'의식은 자연적인 인간을 넘어서 종교적인 인간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죽음의 의식으로서, 죽음이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초자연적인 재생을 기다리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 注16冊, 171쪽.

한편 류취가 지난날의 기녀복을 태우면서 세속적 인간에서 신성한 종교적 인간의 문턱으로 막 진입하려 하지만 「도류취」 중 류취의 도탈과정에는 마지막 한 관문이 남아 있으니, 이성과의 慾情으로 인한 고통이 그것이다. 그러면 원문을 인용하며 살펴보자.

류취 모친: 애야, 집에 하루만 자고 가렴.  
 류취: 사부님, 제 어머니가 집에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하네요.  
 월명화상: 류취야, 俗念을 일으키지 말아라. 네가 만일 속념을 일으키면 나는 금방 안다. 같게.  
 류취: 사부님, 제가 감히 속념을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월명화상이 거짓으로 퇴장한다)  
 류취: 엄마, 員外는 어디 있어요?  
 .....  
 류취: 엄마, 문 좀 지키세요. 원외랑 한 마디 할게요.  
 월명화상: 류취야, 문열어!  
 류취(당황해 하며): 사부님 오셨네. 집에 들어오시도록 문 열어야지.  
 류취(사부를 보지 않으며): 사부님이 어찌 하필? 알고 보니 내 귀가 뜨거웠구나. 이 문을 닫아야지. 원외, 당신 생각나 죽겠어요.<sup>31)</sup>

위의 인용문에는 류취가 자연적 인간에서 신성한 인간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남녀간의 욕정으로 인한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 류취는 출가를 결심하였지만 員外를 보고는 '당신 생각나 죽겠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劇 중의 원외는 본시 류취가 기녀 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남자로서 류취 욕정의 대상이다. 위에 의하면 출가를 결심한 류취에게 욕정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은 류취의 모친이다. 그녀는 류취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세속적 인간으로 나타나며, 류취가 돈 많은 원외와 친하게 지내길 바란다. 이런 상황에서 월명화상은 류취가 세속적 잡념인 속념을

31) (卜兒云:) 孩兒也, 你在家中住一夜去. (旦兒云:) 師父, 柳翠의 母親要留柳翠家中住一夜. (正末云:) 柳翠也, 你休凡心動. 你若凡心動呵, 我便知道. 我也去. (旦我云:) 師父, 柳翠并不敢凡心動. (正末虛下) (旦兒云:) 奶奶, 員外在那裏?....., (旦兒云:) 奶奶, 你看着門, 我和員外說一句話咱. (正末上, 云:) 柳翠也, 開門來. (旦兒慌科, 云:) 師父來了也, 我開開這門, 師父家裏來. (做不見科, 云:) 那得那師父, 元來是我的這耳熱. 待我關上我這門. 員外, 則被你想殺我也. 注14冊, 3400쪽.

끊기를 요구하나 위에서와 같이 류취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며, 결국 류취는 일순간 욕정의 고통에 사로잡혀 문을 열어주라는 사부님을 일부러 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

이러한 욕정으로 인한 고통을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불가의 八苦 중의 하나인 愛別離苦에 해당된다. 다만 앞에서는 애별리고의 대상이 형제자매였지만 여기에서는 연인으로 바뀐 점이 다를 뿐이다. 아마 작자가 욕정으로 인한 愛別離苦를 최후의 권문으로 안배한 것은 속세적 인간이 출가하여 신성한 종교적 인간으로 도탈되는 데 있어서 형제자매보다 남녀간의 욕정이 더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남녀간의 욕정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도탈과정에 있어서 잠시 마지막 권문을 넘지 못했던 류취는 월명화상의 질책과 설득으로 힘든 문턱을 넘어선다. 그리하여 류취는 마침내 사부인 월명화상과 함께 출가하여 종교적인 신성한 세계에 진입하는데, 「도류취」 작품 중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극 중에서 류취가 배를 타고 또 다른 언덕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전이의례에서 통합의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이의례나 통합의례의 일반적 성격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상 전이의례의 일부분으로서 살펴보자 한다. 그러면 원문을 인용하며 살펴보자.

류취: 엄마, 저 사부님과 함께 출가하겠어요.

류취 모친: 내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월명화상: 류취야, 배를 타라 배를 타라.

류취: 사부님, 어찌 배는 있는데 사공이 없어요?

월명화상: 류취야, 사공을 요구해서 뭐 할 거야? 내가 오로지 여기서 남들에게 강을 건너게 해주느니라.

.....

월명화상: 류취야, 언덕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리렴.<sup>32)</sup>

32) (旦兒云:) 奶奶, 我跟師父出家去也。(卜兒云:) 你去呵, 我可怎了?(正末云:) 柳翠, 上船上船。(旦兒云:) 師父, 怎生有船無梢公?(正末云:) 柳翠也, 要那梢公怎么? 我一意在這裏渡人來.....。(云:) 柳翠, 到岸了也, 可下船來。注14冊, 3401쪽.

위의 인용문은 세속적 세계에서 신성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배를 타고 강을 넘어가는 장면을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류취는 출가의 마지막 고별 인사로 세속의 어머니와 결별하고 배를 타는데 배에 있어야 할 사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류취의 지적에 월명화상은 사공이 따로 필요 없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강을 건내주는 사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사공과 같은 도탈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불교에서는 세속적 인간이 불교에 귀의하는 종교적 인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위에서와 같이 江의 이 언덕(此岸)에서 저 언덕(彼岸)을 건너는 것으로 비유하며, 이렇듯 피안의 세계로 강 언덕을 건너는 것을 불교적 전문용어로 '波羅蜜多(바라밀다)'라고 한다. 곧 바라밀다는 인간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현실에서 생기는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하여 彼岸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 이렇듯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해탈하여 피안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修行을 하여야 하는데, 불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행을 육바라밀(六波羅蜜)<sup>33)</sup>이라고 한다.

#### 4. 통합의례

통합의례는 분리의례와 전이의례를 끝낸 개인이 새로운 지위나 역할을 부여 받아서 원래의 세계로 복귀하는 의례이다. 이러한 통합의례는 의례의 주체들이 전체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새롭고 안정되며 분명한 위치로 되돌아감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현상과 행동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삶의 주기적 제의(통과의례)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단계는 대개 어떤 향상된 지위, 즉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삶의 도정에서 좀 더 나은 하나의 단계를 표상한다.<sup>34)</sup> 그러면 이러한 통합의례의 양상이 「도류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원문을 인용하며 살펴보자. 극 중에서 류취의 통합의례적 양상은 마지막 제4절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보인다.

33) 布施波羅蜜, 持戒波羅蜜, 忍辱波羅蜜, 精進波羅蜜, 禪定波羅蜜, 般若波羅蜜을 가리킨다.

34) 注9冊, 41쪽.

류취: 저 류취는 잠시 숲 속에 들어왔어요. 내일 다시 禪定<sup>35)</sup>에 대해 물어야지요. (퇴장)

長老: 사부님, 류취가 東廊 아래에서 坐化(앉은 채로 입멸함)했습니다.

월명화상: 내가 류취를 데리고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우리 世尊을 비러 가야겠다. (퇴장)

行者(놀라며): 정말 이상하네. 이 주방 아래의 미치광이 和尚이 설마 活佛은 아니겠지? 나도 지금부터는 素食하지 않고 것처럼 술과 고기를 먹고도 류취를 찾아 도탈시키는 것을 배워야지.

장로: 고승 나한이 류취를 도탈시켜 불법에 귀의토록 시킬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

관세음보살(善才童子를 데리고): 저는 南海의 관세음보살입니다. 월명존자를 시켜 류취를 도탈시키도록 보냈으니, 조만간 올 거예요.

월명화상(류취와 함께): 보살님, 저 월명존자가 도탈시킨 류취가 왔습니다.

관세음보살: 류취야, 너 버들가지와 잎이 먼지로 더럽혀져 그 별로 인간세상에 가서 전생의 빛을 갚도록 했는데, 오늘 월명존자가 너를 불법에 귀의토록 인도했느냐?

류취: 보살님께 머리 숙이나니, 제가 깨달았습니다.

월명화상: 류취야, 부처님의 偈頌을 들어보렴. 계송을 노래하다. 일체有爲法<sup>36)</sup>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또 한 번개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

관세음보살: 류취야, 들어라....., 愛慾과 탐욕 그리고 화냄을 모두 버리고 부처님의 설법에 함께 하여라.<sup>37)</sup>

35) 불가에서 반야(般若)의 지혜를 얻고 成佛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행 방법 중의 하나로,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을 막고 마음을 고요하게 통일하여 入靜三昧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6) 여러 인연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

37) (旦兒云:) 我柳翠且歸林下, 明日再來問禪. (下) (長老云:) 上告我師和尚, 柳翠在東廊下坐化了也. (正末云:) 老僧引着柳翠, 駕起祥雲, 見俺世尊去來. (下) (行者做驚科, 云:) 好是奇怪, 難道這香積廚下風魔和尚倒是個活佛不成? 我如今不吃齋了, 也學他吃酒吃肉, 尋個柳翠來度他去. (長老云:) 誰想聖僧羅漢, 度脫柳翠歸空去了....., (觀音領善才上, 云:) 我南海觀世音菩薩, 着月明尊者度脫柳翠去, 這早晚敢待來也. (正末同旦兒上, 云:) 菩薩, 我月明尊者, 度脫的柳翠來了也. (觀音云:) 柳翠, 因爲你枝葉觸汚微塵, 罰往人世, 填還宿債, 今日月明尊者引度你歸空了么? (旦兒云:) 菩薩稽首, 弟子省悟也. (正末云:) 柳也, 聽我佛的偈. (偈云:)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觀音云:) 柳也, 你聽者....., 畢罷了愛慾貪嗔, 同共到靈山會上. 注14冊, 3412-3413쪽.

먼저 위의 인용문에서 류취는 불가의 이치를 터득하고 깨달은 자로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월명화상과 관세음보살은 류취에게 불교의 기본 교리를 숙지시키고 있는데, 불교의 『金剛經』 四句偈 중의 소위 ‘六如’와 ‘三毒’이 그것이다. 대승불경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金剛經』에 나오는 사구제인 ‘육여’는 일체 현상 만물의 존재는 자체적이고 고정적인 실상인 自性을 지니지 않고 因緣의 작용인 緣起에 의해 잠시 假想으로 조합된 것에 불과하다는 쉼 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세상 만물의 일체 존재를 여섯 가지 허망한 존재인 꿈·환상·물거품·그림자·이슬·번개에 비유한 것이다. 또 ‘삼독’은 인간이 지니는 대표적인 근본 번뇌 세 가지로서, 탐욕과 화냄 및 어리석음을 가리키는데, 이 세 가지가 중생에게 성불하는 데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삼독’이라고 부르며,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중 탐욕과 화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류취가 도탈하여 원래의 신성한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녀가 앓은 채로 열반한 坐化 이후이다. 좌화는 불가에서 회귀하고도 장엄하게 여기는 일로,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 깊은 禪定에 들어간 후 그대로 입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류취는 이미 불가의 수행을 깊이 터득한 상태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좌화한 류취를 데리고 월명화상은 곧바로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신성한 세계의 관세음보살에게 보고하러 갔으니, 이는 이미 류취가 속계의 인간에서 성스러운 종교적 피안의 생명으로 재탄생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도탈극에서 피도탈자의 사망과 재탄생은 가장 핵심적인 구조가 되는 것으로, 피도탈자인 류취의 세속적 사망은 종교적 재탄생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합의례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엘리아데의 다음 두 문장을 보자.

세속적인 조건에서는 죽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세계, 신들의 세계에서 재생하는 가입식(통과의례)의 각본은 고도로 발달된 종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명한 예는 인도의 제의에서 볼 수 있다. 그 목표는 사후에 천상에 올라가 신들과 더불어 살거나 神性을 획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초인간적인 존재양식을 획득한다.<sup>38)</sup>

만약 신가입자가 그 유아적이고 세속적이며 부활 없는 生에서는 사멸하

고 새롭게 성화된 실존으로 재생한다면, 그는 또한 인식과 知를 가능케 하는 어떤 존재양식으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신가입자는 오로지 새로 태어난 자 혹은 부활한 자 일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자, 신비를 알고 형이상학적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이기도 하다.<sup>39)</sup>

엘리아데의 위의 글에 의하면 통과의례에 참여하는 목표는 초인간적인 존재양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통합의례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신들과 더불어 살거나 神性を 획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은 「도류취」 중 피도탈자인 류취의 도탈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류취가 세속적인 사망을 통하여 신비를 알고 형이상학적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신들의 세계에 합류하여 신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으며, 神性を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피도탈자인 류취가 사망과 재탄생을 통하여 본래 자신의 신성한 세계로 복귀한 것은 통과의례 중 통합의례의 성격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5. 결론

원잡극 「도류취」는 李壽卿이 지은 종교극 중의 하나로 남자주인공인 월명화상이 여자주인공인 류취를 도탈시키는 내용의 도탈극이다. 도탈극은 본시 일본의 학자인 青木正兒가 『元人雜劇序說』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로, 만물의 생명을 生死와 苦厄에서 제도하고 해탈시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고전 희곡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탈극이라고 말하면 신선도탈극을 연상하지만 그것은 도탈극 중 도교적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선도탈극이 많기 때문이며, 본문에서 다루었던 「도류취」는 불교적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교도탈극이다.

도탈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류취」는 작품의 전체적인 도탈구조에 있어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피도탈자인 류취가 신성한 세계에서 세속적 세계로 폄적되어 분리되고, 이후 도탈자인 월명화상이 여러 과정을 통하여 피도탈자인 류

38) 注16冊, 178쪽.

39) 注16冊, 172쪽.

취를 도탈시키며, 최후에는 류취가 다시 神性을 획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는 공간이동이 이루어지는데, 聖界-俗界-聖界로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이 과정 중에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류취」의 도탈과정은 통과의례의 과정과 매우 흡사하였다. 통과의례는 민속학자인 켈넵이 처음 사용하였으나 이후 엘리아데가 종교론적으로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발전시켰으며, 터너는 공연예술이론에 확대하여 사용하였다. 통과의례의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분리의례-전이의례-통합의례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단계에서는 상징적 표현들이 자주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도류취」의 도탈과정에 담긴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통과의례의 관점을 사용하였다.

분리의례는 일반적으로 종래의 지위나 상태에서부터 분리를 상징하는 형태로 행하여진다. 「도류취」에서 류취는 본시 관세음보살 정병 속의 버들가지의 신분으로서 식물에 해당되는 존재였으나, 식물임에도 버들가지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상징하며 중생들에게 衆病을 제거해주는 존재로서 聖物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신성한 버들가지가 속세 생각과 같은 더러운 먼지에 더럽혀지고, 그 별로 관세음보살은 버들가지를 인간세계의 미천한 기녀 신분인 류취로 내려 보낸다. 곧 신성한 버들가지는 더럽혀져 청정함을 상실한 일종의 상징적 죽음을 당하여 속계로 폄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통과의례 중의 분리의례와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도류취」의 도탈과정은 속계로 떨어진 류취를 다시 聖界로 복귀시키기 위한 과정이 핵심을 이룬다. 도탈자인 월명화상은 피도탈자인 류취를 도탈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그 중의 핵심적인 내용은 꿈을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류취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및 시련을 견뎌야만 했다. 바로 도탈과정 중의 고통과 고난 및 시련이 도탈극의 핵심이며, 류취는 이를 극복하여 세속적 인간에서 종교적 인간으로 새로운 존재양식을 획득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류취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연인 등을 포기하는 愛別離苦의 고통을 겪었으며, 꿈 속에 자신이 고양이로 변하는 악몽을 꾸어 죽음을 예감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탈자인 월명화상이 術數를 사용하여 무서운 꿈인 소위 '惡境頭'를 꾸게 하자, 피도탈자인 류취는 자신이 염라대왕에게 참수당하는 꿈을 꾸게 되어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월명화상은 바둑과 雙六 및 氣球라는 세 가지 기예를 류취와 겨루는 과정 중에 불가의 이치가 담긴 偈言을 말하여 흔들리던 류취의 마음을 바로잡았다. 그리하여 류취는 자신의 기녀복을 태우는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였고, 강을 건너는 동작으로 마침내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도탈 중에 사용된 수많은 고통과 시련 등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행하였던 의식 중에 상징의 수법이 폭넓게 사용된 점은 통과 의례 중 전이의례의 양상과 매우 부합하였다.

피도탈자인 류취는 坐化라는 죽음으로 통하여 비로소 또다른 세계인 종교적 신성함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곧 류취의 세속적 죽음과 종교적 재탄생은 「도류취」의 핵심 내용이었다. 죽음은 새로운 재탄생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통과 의례 중 마지막 단계인 통합의례의 양상과 매우 흡사하였다. 류취는 세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神性을 지닌 초인간적인 존재양식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 〈參考文獻〉

- 溫小騰, 「淺析元雜劇中的度脫劇」, 『大慶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06.
- 李惠綿, 「論析元代佛教度脫劇」, 『佛學研究中心學報』, 第6期, 臺灣, 2007.
- 曹國榮, 「元雜劇佛禪義理芻議」, 『社科縱橫』, 第22卷 8期, 2007.
- 荏攀, 「試論元代佛教雜劇中的禪宗文化」, 『連雲港職業技術學院學報』, 第22卷 2期, 2009.
- 羅永忠, 「試論元雜劇佛道劇中對佛教道教的批判」, 『全國中文核心期刊 藝術百家』, 第3期, 2003.
- 鄭傳寅, 「論元雜劇中的佛教劇」, 『武漢大學學報』, 第66卷 1期, 2013.
- 陳洪, 「元雜劇與佛教」, 『文學評論』, 2005年 6期.
- 福滿正博, 「試論元雜劇中的度脫劇」, 『戲曲研究』, 第46輯, 文化藝術出版社, 1993.
- 毛小雨, 「元雜劇中佛教戲研究」, 『戲曲研究』, 第31輯, 文化藝術出版社, 1989.

- 楊毅,『宗教與戲劇的文化交融』,福建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2005.
- 青木正兒 著,隋樹森 譯,『元人雜劇序說』,臺灣,長安出版社,1976.
- A. 반 권념 著,金京秀 譯,『통과의례』,서울,을유문화사,1994
- M. 엘리아데 저,이은봉 역,『성과속』,서울,한길사,1998.
- 빅터 터너 지음,김익두 옮김,『제의에서 연극으로』,서울,현대미술사,1996.
- 容世誠 著,『戲曲人類學初探』,北京,光西師範大學出版社,2003.
- 王學奇 主編,『元曲選校注』,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1994.

#### 〈中文提要〉

在元雜劇的諸多劇種中,度脫劇算得上是一個獨特的劇種。雖然所占比例不大,受到關注不多,但具有相當的代表性,值得進一步深入研究。提到度脫劇,人們常常聯想到神仙道化劇。其實,二者之間確實連繫緊密但不能同等。度脫即超度解脫之義,它本是佛家用語,指超度解脫萬物有情生死苦厄之意。日本青木正兒在『元人雜劇序說』中最先使用度脫劇一名。現存約150多種元雜劇作品中,度脫劇約占十分之一左右。其中道教度脫劇13種,佛教度脫劇4種,「度柳翠」是佛教度脫劇中的代表。

「度柳翠」是元代戲曲作家李壽卿之作。它的基本內容是月明和尚作為度脫者的身分利用各種手段來度脫被度脫者柳翠的故事。一般來說,度脫儀式都包含三個階段,也就是分離-轉移-統合。也就是說整體度脫過程等於通過儀禮的三個階段。「度柳翠」也是一樣。所以本論文用通過儀禮的觀點來分析度脫劇「度柳翠」的度脫過程。

第一階段是分離儀禮。作品中的被度脫者柳翠從神聖的空間分離出來。她元來是觀世音菩薩淨瓶中的楊柳枝葉。它雖然是植物,可是象徵着大慈大悲,算是聖物。可是它觸污微塵,失去了它本來的清淨,所以被貶謫到世俗的人間世界。

第二階段是轉移儀禮。作品中的大部分情節都屬於轉移儀禮。在轉移儀禮的過程中度脫者月明和尚利用種種的手段來度脫被度脫者柳翠。在這個過程中月明和尚常常利用夢幻的手段來度脫柳翠。其中惡境頭的手段是代表的手段。被度脫者柳翠經歷很多痛苦和試鍊。她通過這樣的痛苦和試鍊後決心出家。在這樣的過程中,常常出現死亡的過程。度脫劇中被度脫者的死亡是必然性的。沒有死亡就沒有度脫。被度脫者通過死亡來獲得神聖的存在樣式。死亡和再誕生是度脫劇的核心內容。而且這樣的內容常常用象徵的手段來表現。

第三階段是統合儀禮。被度脫者柳翠的死亡就是統合儀禮的開始。她通過世俗的死亡來獲

得宗教的神性。在這樣的情況下，柳翠終於還到原來的神聖世界。「度柳翠」是佛教劇。按照佛教的人生觀，我們可以這樣想，柳翠的前生是聖物，現生是妓女，來生是聖物。這樣循環的結構是度脫劇的特徵。

關鍵詞：「度柳翠」，度脫劇，通過儀禮，分離儀禮，轉移儀禮，統合儀禮

이 논문은 2015년 4월 13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